

“라면 물가안정 기조 공감 하지만 원자재가격 급등… 인상요인 여전”

이재명 대통령, 라면가격 거론
식품업계, 고물가 경고에 긴장
“원자재·환율 등 손익에 압박
인상결정, 불가피한 경영 판단”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식품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이 발언을 두고 고물가에 대한 경고이자 사실상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본격화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며 라면 가격을 거론했다. 비록 즉각적인 가격 인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라면’이라는 서민 대표 식품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되자 식품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 정부 관계자의 한마디에 줄줄이 가격을 인하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2000원 안팎의 라면 제품이 존재한다. 농심 ‘신라면블랙’은 1900원, 오뚜기의 프리미엄 컵라면이나 하림의 ‘더 미식 오징어라면’은 2000~2200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일부 수입 브랜드는 3000원을 넘기기도 한다. 다만 대부분의 주력 봉지라면은 여전히 1000원대 초반에 판매되고 있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고급 제품 가격만 부각돼 평균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룹에도 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례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당시 경제부총리가 “밀가루 가격은 내렸는데 라면값은 왜 안 내려냐”고 공개적으로 말한 직후 농심을 시작으로 주요 라면 업체들이 출고가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아예 라면 등 52개 생필품을 ‘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정부가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식품업계는 물가 안정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요인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운임 부담 등이 여전히 기업들의 손익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요 가공식품 74개 품목 중 71.6%인 53개 품목의 물가지수가 작년 11월 대비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상 결정은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의 방향성만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또다시 업계의 가격 전략을 바꾸는 계기가 될 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 바이오 캠퍼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성과 누적… 제약·바이오 ‘승승장구’

삼성바이오 유럽 소재 제약사와
2031년까지 1025억 계약 체결
에스티팜 올해 수주잔고 76% ↑
이달 유럽·미국 제약사와 계약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성과가 연일 누적되고 있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제약사와 신규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1025억원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다섯 번째 수주다. 지난 1월 첫 계약을 시작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전역에서 신규 수주를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들어 누적한 수주 금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5개월 만에 3조2525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 5조4035억원의 60%를 달성한 것이다.

동아쏘씨오그룹 계열사 에스티팜의 수주 잔고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에스티팜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약 2320억원(1억6933만달러)에서 현재 약 4079억원(2억9779만달러)로 76% 증가했다.

에스티팜은 이달에만 두 건의 계약을 추가했다. 지난 9일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약 203억원(1489만달러) 규모의 저분자 신약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급계약은 올해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의 상업화 초도 물량이다. 고객사로부터 두 건의 구매주문을 수령했고, 납기는 오는 2026년 6월까지다. 제품명과 적응증은 비밀유지 협약에 의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美서 신약 파이프라인 알린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참가
잠재적 파트너사와 협력 모색

셀트리온이 신약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과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이달 16~19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서 기존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신약파이프라인을 공유한다.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은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바이오 행사인 만큼, 셀트리온은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관련 역량을 알리고 신규 신약개발 사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망한 신규 모달리티 개발 동향을 파악하면서 셀트리온이 구축하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파이프라인,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 파트너사와 협력을 모색한다.

셀트리온은 올해부터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지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내 셀트리온 단독부스 조감도.

/셀트리온

속 밝혀 왔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ADC 신약 후보물질 ‘CT-P70’에 대한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또 올해 안에 CT-P71, CT-P72 등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계획 제출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종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완성이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옴리클로, 아이덴젤트, 애플토즈마, 스트

보클로, 오센벨트 등을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 발표’ 무대에 선다. 글로벌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연구 개발부터 임상, 허가,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셀트리온만의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도 펼친다.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신약개발 방향성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잠재적 협력사를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화학, 저신장 환아 키 성장 효과적 개선

제20회 LGS 심포지엄 개최
12년차 안전성·4년차 유효성 발표

LG화학이 저신장증 성장호르몬 장기 치료에 대한 확고한 신뢰 확보에 나선다.

LG화학은 소아내분비 전문의 대상 제20회 LGS(LG Growth Study) 심포지엄을 개최, 국내 저신장증 환아 대상 유트로핀 제품군(이하 유트로핀) 치료 장기관찰연구를 중간 분석하며 12년차 안전성 및 4년차 유효성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LG화학은 국내 최초로 한국 소아대상의 성장호르몬 장기 투약 데이터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LGS’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2027년까지 저신

장증 환아 1만명을 모집해 유트로핀 안전성 및 유효성을 2035년까지 추적 관찰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연구 12년째인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 수는 7000여 명을 기록했다.

이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용희 교수는 ‘유트로핀 12년차 안전성과 4년차 유효성 결과’를 발표하며, 유트로핀이 저신장 환아의 키 성장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치료 경과에 따라 또래 표준 신장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성장호르몬결핍증, 부당경량아(저체중 신생아) 환아의 경우 치료 시작 전 표준편차가 -2.5에서 치료 48개월 뒤 -0.9로 또래 표준에 점차 가까워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미약품, 환자 맞춤형 비만치료제 속도

美 당뇨병학회서 임상·연구결과 발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 전주기에 걸쳐 ‘환자 맞춤형’ 비만 신약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낸다.

한미약품은 오는 20~23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25 미국당뇨병학회’에 참가해 총 6건의 전임상 및 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은 ‘에페

글레나타이드’로, 오는 2026년 상반기 임상 종료, 같은 해 하반기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출시 일정을 당초 계획했던 2027년에서 앞당겼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중 감소 및 혈당 조절 효과를 갖췄다. 또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플랫폼 기술 ‘캡스커버리’가 적용돼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면서 위장관계 부작용을 크게 개선한다. 한미약품은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HM15275, HM17321 등도 확보했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남성 특화 ‘홍대놀이터점’

지상 3층 규모… ‘맨즈에딧’ 구역 조성

CJ올리브영이 서울 마포구 홍대 상권에 대형 매장 ‘홍대놀이터점’을 열고 남성 특화 공간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매장은 홍익문화공원 인근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규모다. 특히 1층에

올리브영 매장 중 최대인 100평 수준의 남성 전용 ‘맨즈에딧’ 구역이 조성됐다. 남성을 위한 뷰티와 헬스용품, 패션·잡화를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면도 제품을 비롯해 남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스킨케어를 진열했고, 스포츠 브랜드 에이치텍스, 고급 문

구 브랜드 포인드 오브 뷰 등은 흡인 솥 형태로 입점했다. 남성 고객만의 취향을 정조준하는 체험 서비스도 운영한다. 속눈썹 관리 용품으로 꾸며진 아이래쉬바, 피부 유형 및 상태를 분석하고 상담해 주는 스킨스캔 등이 마련됐다.

올리브영은 이번 남성 특화 매장 기획에 다양한 고객들이 홍대 상권을 방문하고 있는 현장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